

# 일제시기 한국인의 중국어 글쓰기와 항일 문학

이동매\* · 우림걸\*\*

## 〈차 례〉

1. 서론
2. 항일 문학 공공영역의 구축
3. 중국어 항일 문학의 전개양상
4. 중국어 글쓰기의 위치: 결론을 대신하여

## [국문초록]

일제시기에 다수의 한국 애국지사들이 중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동시에 그들은 중국어로 200여 종의 신문·잡지를 발간하여 항일 공공영역을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 희곡, 비평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몇 백 편에 달하는 문학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 외에 현재 한국에서 잘 거론되지 않는 르포르타주까지 창작하였다. 이 작품들이 주로 일본의 잔혹한 식민침략을 비판하고 항일 무장투쟁의 현장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대 중국 지식인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만큼 뛰어난 문학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는 한국문학사에 항일 문학이라는 문학 유형이 명백하게 존재함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 항일문학은 애국선열들이 포연탄우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항일투쟁을 하면서 쓴 것이니만큼 한국문학사에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문학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들은 한국인이 창작한 것이지만 쓰인 언어는 중국어다. 한국 내에서 항일에 관한 글쓰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던 당시, 중국이라는 이국공간에서 한국인의 중국어 항일 문학이 매우 독특한 문학 현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인의 중국어 글쓰기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青島濱海學院 中外言語文化研究中心 講師.

本論文為山東省社科規劃項目“抗戰時期朝鮮文學中的山東抗日形象研究”(20CPYJ58) 的研究成果.

\*\* 通訊作者, 山東大學 外國語學院 教授

[주제어] 항일 문학, 항일 서사, 중국어 글쓰기, 르포르타주, 조선의용대

## 1. 서론

1910년 일본은 한국을 강점하였고, 1931년의 만주사변부터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하였으며 1937년에 중일전쟁이 전면적으로 폭발하였다. 한일합방 이후 독립군이 곳곳에서 일제의 통치를 저항하며 무장투쟁을 벌였고, 만주사변부터 동북의용군을 비롯한 중국군도 일제와 싸우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세기 전반기에 일본의 침략으로 동아시아는 전쟁에 휩쓸려 들어갔으며 전쟁문학이라는 문학유형도 나타나게 되었다. 일제는 침략전쟁을 미화하기 위해 이른바 충후문학과 국책문학을 내세웠다. 중국에서는 일본과의 전쟁을 항일전쟁이라고 하고, 항일전쟁을 다루는 작품을 항일문학이라고 부른다. 항일문학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역사를 다루는 문학유형으로 중국문학사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 받았던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항일문학이 잘 거론되어 있지 않았으며 한국인의 항일문학은 문학사적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이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제시기의 한국에서 일본의 식민통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쓰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일제 치하에서 저항 침묵, 우회적 글쓰기 그리고 망명으로 대변되는 저항은 대부분의 문인들이 취했던 비협력적 태도다.”<sup>1)</sup> 일제의 식민통치로 인해 한국 국내에서 항일문학이 형성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해외에서 한국 항일문학이 창작되어 뚜렷한 문학현상이 되었다는 것도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한일합방 이후,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1919년 대한독립군, 1931년에 한국독립군이 창립되어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1938년 조선의용대, 1940년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어

1) 김재용,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4, 187쪽.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중국의 항일전쟁에 투신하였다. 이는 한국의 항일투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독립운동가들이 무장투쟁을 하는 동시에 문학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는 사실이다. 3·1운동의 영향으로, 1919년만 해도 한국독립운동가들이 『자유의 종성』, 『태극기』, 『한족신보』, 『신배달』, 『독립』 등 10종의 매체를 중국에서 창간하였으며 해방까지 총 200종을 넘는 신문잡지를 발간하였다. 잘 알려진 『독립신문』, 『천고』 외에 『광명』, 『신한청년』, 『진단(震壇)』, 『조선민족전선』, 『조선의용대통신』, 『동방전우』 등 잡지들이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 매체들을 통해 한국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의 식민통치를 폭로하고 한국 국내 독립운동의 현황을 전하는 동시에 수많은 문학작품을 발표하였다. 이 작품들은 시, 소설, 희곡, 산문, 비평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양산되었다. 일본군과 싸우는 시기에 창작된 이 작품들은 대다수가 일본의 침략전쟁을 비판하고 일본군과 싸우는 현장을 다루는 것으로 항일문학이라고 불릴 수가 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의 항일체험을 작품화하여 이른바 한국인의 항일문학을 남겼던 것이다. 한국인의 항일문학은 독립운동가들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 피를 흘리면서 일본군과 싸우는 역사에 대한 기록인 만큼 한국문학사에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문학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중국에서 발굴한 자료에 근거하여 한국인이 중국어로 발표한 항일문학작품을 고찰하고자 한다. 중국에서의 한국항일문학은 한국어와 중국어 두 가지 언어로 쓰였다. 한국어로 쓰인 항일 문학은 연구된 바 있지만<sup>2)</sup> 한국인이 중국어로 창작한 항일 문학은 아직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한국독립운동가들이 중국어로 500편에 달하는 문학작품을 발표하였다.<sup>3)</sup> 김택영, 박은식 등 애국지사들은 한문에 익숙했고, 이정호,

2) 한국인이 한글로 창작한 문학작품에 대하여 김주현, 「근대 계몽기 제중 발간 매체에 실린 한국문학 자료의 조사 및 연구」(『어문론총』 제75호, 2018) 참조.

3) 이 숫자는 중국산둥대학교 우립걸 교수의 국가 프로젝트 “20세기 동아시아 항일서사 문헌정리와 연구”의 연구성과에 근거를 둔다. 전쟁 중에 많은 신문잡지가 유실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인의 중국어 항일작품은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정진 등 젊은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백화문에 능통하여 중국어 글쓰기가 어렵지 않았던 것이다. 중국어로 쓰였지만 이 작품들은 한국인의 항일투쟁과 독립운동을 여실히 보여주고 한국인의 독립애국 정신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어로 쓰인 이 작품들은 그동안 거론되지 못한 한국인의 항일 문학의 실체를 잘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다.

## 2. 항일 문학 공공영역의 구축

일제시기에 한국인은 중국에서 200여 종의 신문, 잡지를 발간하였다.<sup>4)</sup> 1913년 이시영, 이회영 형제가 창립한 신웅학교에서 『신웅학우보』가 졸업생에 의해 창간되었는데 이는 한국인이 창간한 최초의 매체로 보인다. 3·1운동의 발발에 따라 한국인은 신문·잡지를 집중적으로 창간하였다. 『조선독립신문』(1919), 『독립신문』(1919), 『신한청년』(1920), 『震壇』(1920) 등이 대표적이다. 이 매체들은 「독립선언」을 전재하고 「한달간 한인의 사상자」, 「수원 제암리의 학살」 등 제목으로 일제의 식민통치를 폭로하였다. 1919년에만 11종의 매체가 발간되고 1920년대에는 70종가량의 신문·잡지가 창간되었다.<sup>5)</sup>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한국인의 매체가 다시 집중적으로 창간되었다. 『조선민족전선』(1938), 『조선의용대통신』(1938), 『동방전우』(1939)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이 전면적으로 항일전쟁에 투신했던 이 시기에 한국 매체들도 항일이라는 구호를 선명하게 외쳤다. “조선민족이 자유를 회복하려면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해야만 한다.”<sup>6)</sup> “조선민족의 유일한 탈출구가 전민족의 역량을 단결시켜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함으로써 조선민족의 독립을 완성하는

4) 김주현, 「근대 계몽기 재중 발간 매체에 실린 한국문학자료의 조사 및 연구」, 『어문론총』 제75호, 2018, 187쪽.

5) 楊昭全, 「朝鮮革命者在中國創辦之報刊」, 『朝鮮·韓國文化交流史』, 2004, 1539쪽.

6) 『조선의용대통신·권두어』 제14호, 1941, 2쪽.

것이다.”<sup>7)</sup> 한국 내에서 일본의 식민통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당시 중국에서 발간된 매체에는 ‘일본의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는 구호가 날로 높아졌다.

200여 종의 매체가 한결같이 일본의 침략을 비판하고 민족의 해방을 호소하며 온전한 항일의 공공영역을 구성했다. 서양에서는 신문·잡지 등 대중매체의 출현이 대중에게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계몽의 역할을 수행하였다.<sup>8)</sup> 한국에서도 계몽의 기획이 공공영역의 발생이라는 토대 위에 놓여져 있다. “공공영역은 사회에 대한 상호이해에 도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론의 공간이다. 의사소통 참여자들은 공통문제를 다룸으로써 사회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받게 되며, 토론의 절차와 형식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조정기능을 통해서 사회적 유대를 형성한다.”<sup>9)</sup> 일본의 검열제도하에 한국은 정치적 공공영역은 물론 문화적 공공영역도 상실하였다. 임시정부가 소재하고 있던 중국에서 200여 종의 매체가 항일이라는 공통문제를 놓고 민족 해방에 대한 토론의 공간을 마련해놓았다.

짧은 종이와 빛은 비록 도둑을 물리치는 날카로운 무기가 못 된다. 하지만 적의 죄를 선포하고 징벌하며 순치국(脣齒國)을 상기시킴으로써 같은 배를 타도록 하고 급한 재난을 함께 구제하는 것은 『천고』의 제일의이다.<sup>10)</sup>

이 『광명일보』는 중한인민에 의해 만들어진 유일한 언론기관이고, 또한 중한인민이 서로 교류하여 민치를 추진하는 언론기관이다. (...) 전세계의 문학가들이 이 유일한 언론기관에 조금이라도 자료를 보내주어 전 인류를 해방시키는 사업을 이루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sup>11)</sup>

7) 『조선민족전선연맹창립선언』, 『조선민족전선』장간호, 1938, 14쪽.

8) 하버마스, 曹衛东译, 『공론장의 구조변동』, 學林出版社, 1990, 55쪽.

9) 김동식, 한국의 근대적 문화개념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9, 22~23쪽.

10) 『天鼓·창간사』, 1921, 2쪽.

11) 新甫, 『광명·발간선언』, 1921, 1쪽.

1921년 신채호는 북경에서 창간한 『천고』의 창간사를 통해 매체의 발간 목적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한국 내에서 “신문은 자주 압수당하며 신문사가 차압되고 3개월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드물다.”<sup>12)</sup> 3·1운동 이후 일본이 문화정책을 취하지만 “의병을 폭도로, 열사를 악한으로 부르는” 『매일신보』 등 일본의 식민통치에 순응하는 매체만 순조롭게 간행되었다. 한국의 독립운동을 제대로 보도하는 매체는 없었다. 때문에 “국내로 보급되기를 욕심 부리지 않겠지만 가까운 이웃에 그 대의를 전한다”<sup>13)</sup>는 목적으로 『천고』를 발간하였다. 매체는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는 직접적인 무기는 되지 못하지만 제국주의가 징벌 받도록 그 죄악을 폭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채호의 주장이다. 애국계몽기의 대중매체들이 한국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지식인 신채호는 이러한 공론장으로서의 매체가 갖는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천고』를 창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이국공간에서라도 항일 담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론장을 만들었던 것이다.

같은 해, 중국 광주에서 발간된 『광명』은 “한국의 독립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스스로 언론기관보라고 자임하였다. 언론기관으로서 일본의 식민통치를 폭로하는 동시에 “강권을 소멸하여” 민족 해방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세계의 지식인에게 글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잡지는 피압박 민족의 노호(怒號)를 전달하는 방송기이다.”<sup>14)</sup>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에 창간된 『동방전우』의 목표도 “우리의 정의로운 입장을 전세계로 알리겠다”<sup>15)</sup>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서 전세계의 도움을 받아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겠다는 공통의 목적에서 한국 지식인들이 의도적으로 항일의 공공영역을 구축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신문·잡지를 중심으로 재중 한국인들은 공공연하게 항일 담론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중국이라는 이국공간에서 항일 담론의 장을 마련해준 매체들이 한국인에게는 사회적 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 항일 문학의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12) 『天鼓·창간사』, 1921, 3쪽.

13) 『天鼓·창간사』, 1921, 4쪽.

14) 『동방전우·발간사』, 1939, 2쪽.

15) 『동방전우·발간사』, 1939, 2쪽.

항일의 공공영역을 구성하는 것은 한국인끼리 민족 해방의 방도를 토론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지식인들과도 밀접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진단』을 예로 들면 중국 손문(孫文)과 장개석(蔣介石)으로부터 천하위공(天下爲公),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제사를 받았으며 중국 지식인들의 글도 보내왔다. 『신한청년』의 첫 페이지는 중화민국전국보계연합회의 제사로 구성된다. 보계연합회라는 것은 중국의 신문·잡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중국 언론기관의 총집합이다. 『신한청년』이 보계연합회로부터 제사를 받았다는 것은 한국인의 매체가 중국매체와 교류를 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에 한중 매체의 교류는 더욱 활발해졌다. 『구망일보』 등 중국 매체와 『조선의용대통신』 등 한국 매체는 서로 대화하고 전제하면서 항일 담론을 전개하였다. 요컨대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한중 지식인들이 국제적 항일의 공공영역이 구축하였던 것이다.

### 3. 중국어 항일 문학의 전개양상

항일이라는 용어는 역사적 문제로 인해 한국에서 잘 쓰이지 않지만 중국에서 활동했던 한국독립운동가들에 의해 많이 사용되었다. 중국인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중국항일전쟁에 투신한 그들은 항일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한국이나 중국의 항일 공론장에서 500편에 달하는 문학작품을 발표하였다. 시, 산문, 희곡, 비평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이 작품들은 망국의 비애, 일본식민통치에 대한 폭로 및 비판, 항일운동의 현황 등을 다루었다. 항일현장에 쓰이고 항일정신이 넘친 이 작품들은 한국인의 항일문학의 실체로 볼 수 있다.

#### 1) 시가

1911년 3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잡지였던 『동방잡지』에 이범진의 「절

명시』와 모한인으로 서명한 「거국음(去國吟)」이 발표되었는데 일제시기에 최초로 발표된 한국인의 시로 보인다. 한일합방 후 이범진공사의 자결은 동아시아 지식인에게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동방잡지』에서 그의 순국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절명시를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호에 실린 「거국음」<sup>16)</sup>은 오언절구인데 시인이 모한인(某韓人)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한일합방 이후, 중국으로 망명한 한국인들이 “울고 싶어도 울 수도 없고, 가려고 해도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심정을 여실히 표현했다.

망국시 중에 「망국음」이라는 칠언율시가 영향력은 가장 컸다. 현재까지 확인된바, 「망국음」은 중국 잡지에 총 4번 발표되었다. 1924년에 『진덕계간(進德季刊)』에 게재되었고, 이후, 1932년 『국민공론(國民公論)』에, 1933년에 『혁명군인(革命軍人)』에 전재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청나라 말의 가장 유명한 소설가 이백원(李伯元)의 시화집 『장해시화(莊諧詩話)』에 의하면, 「망국음」은 1908년에 이미 발표되었다. “무신년에 나는 병으로 남쪽에 묶여 있었다. (...) 섬라의 『화서신보』를 훑어보다가 「망국음」이라는 칠언율시를 읽었는데 그 서명은 망국 유민 임정길이다.”<sup>17)</sup> 1925년에 출판된 『장해시화』 중의 “조선유민”절에 저자가 무신년에 『화서신보』에서 「망국음」을 읽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화서신보』는 1907년에 중국 혁명당이 태국 방콕에 창간한 한문 신문이고, 무신년은 1908년이다. 요컨대 「망국음」은 조선인 임정길이 1908년에 방콕에 출간된 한문 신문 『화서신보』에 발표한 한문시라고 볼 수 있다. 『장해시화』에서 「망국음」의 저자가 조선 유민 임정길이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이 시를 개재한 『진덕계간』(1924), 『국민공론』(1932), 『혁명군인』(1933)

16) “欲哭不堪哭/欲行不忍行/乾坤雙淚眼/何處是秦庭。” 某韓人, 「去國吟」, 『東方雜誌』 第8卷第2期, 1911, 26쪽.

17) 李伯元, 『南亭四話·莊諧詩話』, 上海出版社, 1985, 140~141쪽. 『莊諧詩話』는 이원백의 유고를 정리하여 1925년에 출판한 책이다. 그러나 이원백이 1906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1908년에 발표한 「망국음」을 읽을 수가 없다. 「조선유민」에서 「망국음」을 소개한 후에 “나도 한명의 망국민인데 입군과 한번 만나서 어려운 시국을 함께 통곡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을 붙였다. “나도 한명의 망국민”이라는 표현으로 보면 「조선유민」이라는 글이 조선인에 의해 쓰인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인이 쓴 이 글이 후일 이원백의 작품으로 오인되어 『莊諧詩話』에 수록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 조선인이 누구고, 그의 글이 어떻게 이원백의 것으로 오인되었느냐의 문제가 흥미로운 연구주제지만, 이 논문의 연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겠다.



에서는 각 각 “한인 임정길”, “조선 임정길”, “임정길(조선인)”으로 저자를 밝혔다. 이렇게 보면 『망국음』은 한국인 임정길의 시임은 틀림없지만 임정길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아 시인 연구에 아쉬움이 남았다.

국과가망사가애(國破家亡事加哀), 강류독대혈흔래(江流獨帶血痕來). 상년살육난재억(常年殺戮難再憶), 차일음매상미개(此日陰霾尙未開). 피골공존련적자(皮骨空存憐赤子), 두로경척곡영재(頭顱輕擲哭英材). 수심보복지하일(仇深報復知何日), 불신황혼환불회(不信黃魂喚不回).<sup>18)</sup>

『망국음』은 서정의 성격이 강한 칠언율시다. 시인 임정길은 수련에 국과가망의 사회현실을 한탄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일본인의 살육으로 한강까지 혈흔으로 얼룩지게 되었다. 1908년에 발표하였기 때문에 국과가망이라는 것은 을사조약을 가리키는 것이다. 함련에는 일제가 몇 년 동안 조선반도를 침략하고 한국인을 살육하는 사실을 주지시키다. 경련에 와서 강탈과 살육을 당한 한국인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미련에는 “깊은 원수를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선의 혼을 불러들이지 못함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조선의 혼을 깨워 원수를 갚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달하였다.

시인 임정길은 현재까지 한국문학사에 확인되지 못한 인물이지만 을사조약 체결한 후, 그는 해외 매체를 통해 일본의 침략 사실과 한국인의 고통을 세계로 알려 한국문학사에 중요한 역할 하였다. 1924년 이 시를 게재할 당시, 『진덕계간』은 “음조가 비장하며 굴옹산과 극히 유사하다.”고 임정길의 『망국음』이 중국 명나라 말기 저명한 시인 굴대균(屈大均, 자는 翁山)의 시와 비슷하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화서신보』를 포함해서 중국에서는 임정길의 『망국음』은 1900~1930년대 총 4번 게재되었을 만큼 동아시아 문학사에 간과할 수 없는 작품이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유민 이모의 이름으로 발표한 『망국가』도 역시 간과해

18) 林貞吉, 「亡國吟」, 『進德季刊』第3卷第1期, 1924, 3쪽.

서 안 되는 작품이다. 1933년 중국인 황조(黃祚)가 『국문주보(國聞周報)』에 「망국가」를 발표하였는데 “이 시기는 한국유민 이모씨의 작품으로 망국의 고통을 매우 비장하고 처량한 필치로 묘파하고 있다.”<sup>19)</sup>고 한국인의 시가라고 밝혔다. 이후 『흑백(黑白)』(1933), 『역행(力行)』(1933), 『점점(詹詹)』(1933), 『동북의용군공보(東北義勇軍公報)』(1934), 『중산주보(中山週報)』(1935) 등 잡지에서 「망국가」를 총 6번 게재하였다.

어시창읍영동북(于時昌邑迎東北), 주인서래칭감국(主人西來稱監國), 국사가런  
 일점비(國事可憐日漸非), 동해거랑배공비(東海巨浪排空飛). (…)  
 금문팔월야삼경(金門八月夜三更), 천승왜아철기명(千乘倭兒鐵騎鳴), 침전도광명옥아(寢殿刀光明  
 玉兒), 금평혈색암구등(錦屏血色暗球燈), 상심막설궁중겁(傷心莫說宮中劫), 황후  
 순난황자집(皇后殉難皇子執), 최시육가운금상(最是六家雲錦裳), 포잔황토말저담  
 (拋殘黃土馬底踏) (…)  
 자야몽중견선황(昨夜夢中見先皇), 용안처측누만행(龍顏  
 測淚萬行).<sup>20)</sup>

「망국가」는 장편서사시로 을미사변 전후의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시인은 “나는 한성 궁중인”이라고 조선 왕실 사람인 것을 밝히면서 서사를 시작하였다. “입궁할 시 젊고 왕을 따라 거닐었고 용인이 늘 웃었다”는 아름다운 추억을 서술한 후, “주인이 서쪽에서 와서 감국을 칭하다”는 치욕적인 역사를 구체적으로 묘파하고 있다. 을미사변이 발생할 당시, 시인이 황궁 안에 있기 때문에 일본군인들이 황궁을 습격하여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꿈에서 처참하게 울고 있는 선왕의 보습을 봤다고 하면서 서사를 끝냈다.

시인 이모는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젊었을 때 입궁하여 왕의 주변을 지켰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의 유민임은 틀림없다. 이름 확인할 수 없는 조선유민 이모와 그의 시를 발표한 중국 지식인 황조와의 관계를 아직

19) 黃祚, 「補白」, 『國聞周報』 제10권제28기, 1쪽.

20) 朝鮮遺老李某, 「亡國歌」, 『國聞周報』 第10卷第28期, 1933, 1쪽.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선유민의 시가가 중국지식인 및 중국매체를 통해 세계로 알려졌다는 점이다. 황조가 “우리나라도 지금 쌓아 올린 계란과 같으니 망국의 맛을 볼지도 모르니 경험자의 말부터 들어보자”고 하면서 「망국가」를 소개하였다. 망국인의 시를 읽고 망국의 맛을 보지 않도록 일본군과 싸우자고 소호하는 의미에서 중국인 황조가 조선 유민의 「망국가」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변 이후 1932년에 만주국이 세워짐에 따라 중국 동북지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망국음」과 「망국가」 등 한국망국 관련 시가를 소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망국시가가 중국인의 항일정신을 분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또한 중국의 매체가 지속적으로 게재한 것은 한국의 망국 시가가 동아시아 문학사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조선의 유민에 의해 쓰인 고체시가 대부분 망국의 슬픔을 한탄한다면, 젊은 세대 독립운동가들이 창작한 자유시는 항일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 “일본군벌 향해, 일본재벌 향해, 한간주구(漢奸走狗)를 향해, 타격하자, 폭동하자, 암살을 하자!”<sup>21)</sup> 1939년에 발표한 「팔이구」는 국치일을 기념하기 위해 쓰인 것이지만 망국의 비애가 보이지 않고 정면으로 일본과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매우 강하고 선명하게 표출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중국은 전면적으로 일본군과 맞서 싸우기 시작하였는데 그 영향을 받아 재중 한국인들도 강한 항일 의지를 표출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피바다 속에서  
 신음하고, 통곡하고 분노하는  
 조선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우리는 중국의 땅 위에서  
 일본 파시즘 강도와 혈투하고 있느니

21) 重光, 「八二九」, 『조선의용대통신』 第24期, 1939, 6쪽.

(…)

정의의 총구로

동방의 폭군을 겨룬다.<sup>22)</sup>

『조선의용대』라는 자유시가 1939년2월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 『신화일보(新華日報)』에 발표되다가 같은 해 『군사잡지(軍事雜誌)』에 전재되었다. 1938년10월 한국인으로 구성되는 조선의용대가 중국 무한시에서 결성되는 즉시 중국군과 함께 항일전쟁에 투신하였다. 『조선의용대』는 바로 조선의용대의 항일투쟁활동을 묘사하는 서사시다. 저자명 미상의 이 시는 첫마디에서 “우리는 조선의용대이다”고 조선의용대대원이라는 신분을 밝혔다. “우리 120명이 제국의 채찍 하에, 울고 있는 국토에서, 바다의 건너편에서, 투쟁하고 있는 중국으로 왔다.”<sup>23)</sup> 시인은 침략을 받고 있는 고국을 떠나고 중국으로 건너갔다고 서술한 후에 조선민족의 독립을 위해 중국의 땅 위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는 장면을 보여준다. 또한 “정의의 총구로, 동방의 폭군을 겨룬다”고 무력 전쟁으로 일본을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표출한다. 한국 국내에서 일본의 식민통치를 비판하는 글조차도 발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선의용대대원들이 중국에서 항일정신으로 가득 찬 시가를 발표하였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에 발표한다는 사실도 『조선의용대』라는 시가의 문학과 역사적 가치를 말해준다.

히말라야 최고봉의 하얀 눈을 밟고

나는 펜촉처럼 우뚝 서서

목 놓아 우러러

최고의 음으로 노래하리라

(…)

“진”의 탄, “용”의 탄, “행”의 탄

22) 『朝鮮義勇隊』, 『新華日報』, 1939.2.5.

23) 『朝鮮義勇隊』, 『新華日報』, 1939.2.5.

최고의 소리 폭탄이어라  
 히말라야 최고봉에 높이 걸려 있는 저 태양  
 이 “소리 폭탄”에 맞아  
 이 땅의 구석구석으로  
 무수의 빛발을 발사하리라.<sup>24)</sup>

이두산의 「방가(放歌)」는 1940년에 『중국시단(中國詩壇)』에 발표된 자유시인데 현재 중국에서 항일문학의 역작이라는 고품을 받고 있다.<sup>25)</sup> 이두산은 1917년에 상하이로 망명하고 1920년에 임시정부의 재무부 서기를 맡았다가 1935년에 조선민족혁명당에 가담하였으며 1939년부터 조선의용대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 외에 그는 문학활동에도 주력하였다. 1932년에 한국독립당 광동 지부의 기관지 『한성』을 창간하고 『최근조선의사열전』(1935), 『동아의 진상』(1940)이라는 책을 편저하였으며 1939년에 동방전우사를 설립하고 『동방전우』라는 잡지를 발간하여 주필을 맡았다.

항일전쟁기간에 이두산 등 한국의 군인들이 대부분 일본어를 잘하기 때문에 주로 항일전선에서 정치공세를 담당하였다. 「방가」에서 이두산은 조선군인의 정치공세를 노래로 비유하고 있다. 그는 첫 시구에서 한국군인들이 항일전장에 나간 것을 히말라야의 최고봉에 오르듯 위대하고 장엄한 일로 규정한다. 이어서 “목을 놓아 우러러, 최고의 음으로 노래하리라”는 시구로 항일전쟁의 최전선에서 한국군인이 스피커를 들고 일본군을 향해 정치공세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진, 용, 행이라고 소리 높이 노래한다”고 일본군에게 일본군국주의가의 진실한 면모를 폭로하고 세계평화사상을 선전하는 조선군인의 정치공세를 “진(眞), 용(勇), 행(行)”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정치공세를 일종의 전쟁무기인 폭탄으로 본다. “‘진’의 탄, ‘용’의 탄, ‘행’의 탄, 최고의 소리의 폭탄이어라” 한국군인이 일본군을 향한 외침을 폭탄에 비유할 뿐만 아니라 이 폭탄 폭발의 자극을 받아 햇빛이 솟아 내리는

24) 이두산, 「放歌」, 『中國詩壇』 第6期, 1940, 1쪽.

25) 『中共中央南方局的文化工作』, 中共黨史出版社, 2009.

것처럼 한국군인 정치공세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구름을 뚫고 햇빛이 내려쬐는 것이 일제의 침략을 몰아내고 민족의 독립을 되찾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두산의 이 시와 같은 호에 중국 저명한 시인 목목천(穆木天)의 『조선전우 이두산선생께』라는 시도 함께 실려 있다. 이 시에서 목목천이 이두산을 비롯한 한국인의 항일투쟁을 높이 평가하였다. “조선과 동북의 전우들이, 수많은 기적을 함께 만들어놓았다. 하얀 눈 위에 전우들이 피를 흘리고 있다. 친구요, 그 피는 위대한 것이요.”<sup>26)</sup> 이두산은 동방전우사를 운영하면서 목목천 등 많은 중국 지식인들과 교류하게 되는 것이다. 두 편의 시를 함께 실은 『중국시단』의 편집인이 “이 두 편의 시를 여기서 같이 발표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어 독자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시의 무드와 시인들의 목적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7)</sup>고 게재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한국인 이두산과 중국인 목목천의 시가의 목적이 같다는 것이 일제를 몰아내겠다는 결심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국인의 항일을 구가하는 이두산의 시가 당대 중국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이다. 즉 이두산은 한국 항일문학의 예술적 가치를 중국문학계에 보여주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활동한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항일공론장을 통해 한국인 항일문학의 실체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문학을 중국 내지 세계로 알리는 중요한 문학사적 역할까지 하였다.

## 2) 르포르타주

르포르타주(Reportage)는 보고문학이라고도 불리며 역사적 사건, 사회적 사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글쓰기로 서구시민사회 공론장의 발전에 힘입어 형성된 문학 장르이다. 문학적 르포르타주는 에곤 에르 키쉬(Egon Erwin Kisch, 1885~1948)에 의해 제기되었으며<sup>28)</sup> 독일 작가들은 1920년대 이래

26) 穆木天, 「贈朝鮮戰友李斗山先生」, 『中國詩壇』 第6期, 1940, 2쪽.

27) 『中國詩壇』 第6期, 1940, 3쪽.

28) 탁선미, 「에곤 키쉬의 르포르타주 문학」, 『독일어문학』 제30집, 2005, 199쪽.

사회비판적 르포르타주, 산업 르포르타주까지 만들어냈다. 1926년에 일본 프로작가동맹의 제2차 회의에서 르포르타주에 관련 제안을 제기하였으며 그 후 좌익문학비평가 카와구치 히로시(川口浩)가 『보고문학론』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동아시아에서 본격적으로 르포르타주를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일본문학계의 영향으로 1930년대부터 중국에서는 르포르타주가 중요한 문학 장르로 부상되었다. 1932년4월 저명한 문학사가 아영(阿英)에 의해 편저된 『상하이 사변과 보고문학』이 출판됨에 따라 중국 지식인들이 집중적으로 르포르타주 작품을 창작하기 시작하였다. 르포르타주라는 문학 장르가 중국으로 유입한 시기가 만주사변 전후이기에 항일이라는 시대적 임무와 저절로 결합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성스러운 항일 전쟁이 폭발한 후 국내외 잡지에서 가장 많이 보이고, 독자의 주의를 가장 많이 끄는 것은 보고문학이라는 글쓰기 양식이다. (...) 전선에서의 소감, 유격대 구역에서 우리군의 행동과 전략 등은 모두 르포르타주의 절호의 재료다.”<sup>29)</sup> 좌익 작가 육달부의 지적과 같이 전쟁기간에 문학과 시사성을 동시에 지닌 르포르타주가 급속도로 발전하여 항일전쟁 기간에 주된 글쓰기 양식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현재 르포르타주를 잘 거론되지 않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1920년대 초 박달성을 비롯한 『개벽』 필진들이 지방의 실정을 다룬 르포르타주를 썼으며 전시체제기에는 일본의 과시즘에 부응하는 관변적 르포르타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sup>30)</sup>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친일적인 르포르타주가 창작되는 시간에 항일적인 르포르타주가 더 많이 나오는 점이다. 항일 분위기 속에서 중국 작가와 함께 한국의 지식인들도 자신의 전투생활을 르포르타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7월10일 오전 1시 우리는 배낭과 쌀자루를 배고 수통을 들고 밀짚모자를 쓴 채 주방 앞에 집합하였다. (...) 황하강가에 있는 여자평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경장행군을 하라는 명령을 받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을 버렸다. XX 날에 가벼운

29) 郁達夫, 「報告文學」, 『星檳日報』, 1939.3.26.

30) 박정선, 「해방기 문화운동과 르포르타주 문학」, 『어문학』 제106집, 2009, 371쪽.

옷차림으로, 즉 나뭇잎으로 위장하여 행군하였다. 나무배를 타고 황하를 건너는데 배가 누런 색 급류에 들어갔을 때 침몰할 뻔하였지만 거북을 타고 용궁으로 들어간다는 신화를 연상케 하였다. 황하를 건너 산서성으로 들어갔는데 적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산서성은 섬서성보다 항일의 분위기가 더 진하였다.<sup>31)</sup>

정문주의 「조선에서 진찰기로」는 대표적인 르포르타주다. 정문주는 후일 조선노동당 서기국 서기까지 역임한 허정숙이다. 그녀는 1936년에 남편 최창익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하여 무한에서 활동하다가 연안에 가서 항일군정대학에 입학하였다. 1939년6월 항일군정대학은 항일의 최전선으로 옮기기로 해서 거기서 공부하고 있었던 40여명의 한국인도 따라갔다. 「조선에서 진찰기로」는 그녀의 항일체험을 기록한 글인데 최전선으로 가는 부분이 항일군정대학에서 1941년에 간행한 『항대 문예작품선집』에 수록되었다.

정문주에게 중국의 항일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한국의 독립을 위한 것이다. “항일전쟁에 투신한 것은 조선민족에 부여된 국제적 임무이면서 조선민족 자신의 혁명을 완수하는 특별한 임무이기도 하다.”<sup>32)</sup> 조선민족의 독립을 위해 정문주 등 조선학생들이 쌀자루를 매고 총을 들고 전쟁 중인 산서성으로 출발하였다. 그들은 나무배로 물살이 거센 황하를 건너야 할 뿐만 아니라 일본군의 봉쇄선을 통과해야만 하였다. “하루 종일의 고산행군에다 멀리서 적의 포성까지 들어왔다. 일본군은 바로 산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침 소리조차 못 하고 아주 조용하게 행군을 하였다.”<sup>33)</sup> 3개월의 행군 끝에 정문주 등이 진찰기변구에 도착하여 중국군과 함께 전투에 뛰어들었다.

김태준의 『연안행』과 김사량의 『노마만리』는 중국으로 넘어가 대일본 투쟁경험을 기록하는 글이지만 모두 해방 후에 발표되었다. 이 작품들에 비해 해방 전인 1941년에 발표한 정문주의 「조선에서 진찰기로」가 더 중요한 문학사적 의미를 지닌다. 일제시거리는 암흑기에 한국인이 중국으로 넘어가 전

31) 정문주, 「조선에서 진찰기로」, 『抗大文藝作品選輯』 第1集, 1941, 27쪽.

32) 정문주, 「조선에서 진찰기로」, 『抗大文藝作品選輯』 第1集, 1941, 27쪽.

33) 정문주, 「조선에서 진찰기로」, 『抗大文藝作品選輯』 第1集, 1941, 28쪽.



장으로 행군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보도하는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항대 문예작품선집』에 중국작가들의 글과 함께 수록되는 만큼 이 글은 당대 중국에서도 그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조선에서 진찰기로』가 항일전선에 가는 여정을 기록하는 글이라면 『조선 의용대제일구대 혈전실기』, 『강서전쟁에서 적에게 보내는 첫 새해선물』, 『전선에서의 제일구대』 등은 한국 군인들이 전장에서 싸우는 장면을 정면으로 보여주는 르포르타주 작품들이다.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대일투쟁 상황이 대부분 해방 이후에 알려졌다. 하지만 전쟁 당시에 조선의용대대원을 비롯한 한국 군인들이 신문보도의 형식으로 그들의 전투생활을 기록하여 한국 문학계에 우수한 르포르타주를 남겼다.

적군 쪽은 죽은 듯이 조용하다.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행동을 발견하는 적이 한명도 없었다. (...) 전투의 나팔소리가 적군의 꿈을 깨트렸으며 전우들은 용맹하게 전투에 투신하였다. 기관총, 수류탄, 보병총, 권총 등 피 값을 갚을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은 모두 적군을 향해 날려간다. (...) 삼백여 명의 황군은 이제 “무언의 개선”이라도 하듯 영원히 꿈에서 고국으로 돌아갔다. 총소리가 고요해지고 하늘빛이 밝아지며 웃음을 머금은 태양의 얼굴이 나타났다. 승리의 미소를 짓는 얼굴들이 이제는 뚜렷하게 보인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전장을 지우기 시작하였다.<sup>34)</sup>

총8회에 걸쳐서 『조선의용대통신』에 발표된 『조선의용대제일구대 혈전실기』는 의용대 대원들이 한국어로 쓰고 유금용이 중국어로 번역한 르포르타주 작품이다. 1938년 조선의용대가 성립된 후, 박효삼이 제1구대를 인솔하고 중국의 제9전구로 떠났다. 『조선의용대제일구대 혈전실기』는 바로 제9전구 최전선에서의 전투장면을 기록한 것이다. 제1구대는 주로 정치공세를 담당하였지만 1939년12월 중국군이 일본군을 습격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한국

34) 유금용 역, 『朝鮮義勇隊第一區隊血戰記實』6, 『조선의용대통신』 제19~20期, 1939, 8쪽.

군인들도 참전하였다. “목숨 걸로 앞으로 기어가던 중에 가시에 찢려 피가 나거나 살이 벗겨져도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하며 소멸해야 할 적군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sup>35)</sup> 이 글은 적군을 포위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 군인들이 포복 전진한 후 공격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용대제일구대 혈전실기』는 문학적 가치도 뛰어난 작품이다. 전투 장면을 묘사하는 이 대목은 무성-총소리-무성이라는 구조로 구성된다. 습격 전, 적군은 “죽은 듯이 조용”하다. 우렁찬 나팔소리가 전투의 시작을 알린 직후 각종 총소리가 울린다. 전투가 끝나고 적군은 죽어서 다시 무언의 상태로 돌아간다. 총소리가 사라지고 전장은 다시 조용해진다. 전투 전후의 고요함은 사이의 격렬함을 더욱 강하게 부각시킨다. 유금용 역이라는 서명만 남아 있고 저자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글은 의용대원의 문학적 감각을 잘 보여준다.

그 외에 조선의용대 제3구대의 투쟁생활을 기록한 『강서전쟁에서 적에게 보내는 첫 새해 선물』도 우수한 르포르타주 작품이다. 저제 세광은 제3구대의 부대장 김세일이다. 제3구대는 중국의 제9전구에 소속되며 주로 강서성(江西省)에서 활동하였다. “고함소리와 함께 수류탄도 비 오듯 쏟아나오고 다다닥 기관총소리도 울렸다. 적과의 거리가 몇 십 미터에 불과하였고, 적의 수류탄이 우리의 머리를 지나가 10미터 바깥에 터졌다.”<sup>36)</sup> 호남성(湖南省)에서 강서성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국군과의 합류, 전투준비 및 전투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해서 뉴스보도에 가까운 면이 있다. 하지만 이 글은 보도에 머물지 않고 일본군에 대한 한국인의 적개심도 잘 드러낸다. “일본군의 방화 때문에 마을들에 인적이 보이지 않고 먼 곳에 검은 연기와 불빛만 보인다. 이 처량한 광경은 전사들의 마음을 크게 자극시켰다. 이번에 나라와 가족의 원한을 갚아야 한다. 이번에 불과 같은 분노를 풀어야 한다.”<sup>37)</sup> 일본의

35) 유금용 역, 『朝鮮義勇隊第一區隊血戰記實』5, 『조선의용대통신』第18期, 1939, 11쪽.

36) 세광, 『在江西戰場首送敵人的新年禮物』, 『조선의용대통신』第32期, 1940 15쪽.

37) 세광, 『在江西戰場首送敵人的新年禮物』, 『조선의용대통신』第32期, 1940 14쪽.

침략으로 황폐해진 중국 농촌의 모습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자국의 비참한 현실을 연상케 했다.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전투에 뛰어 들어갔다. 그리고 자신의 전투생활을 보도한 이 글들은 한국 군인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 걸고 포연탄우 속에 일본군과 싸웠다는 역사를 남겼다. 이와 동시에 한국문학에 중요한 르포르타주 작품도 남겼다.

르포르타주는 일본 좌익 지식인에 의해 소개되어 온 문학 장르고, 유입되는 시기는 일본의 대륙침략 확장과 겹친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르포르타주는 저절로 좌익문학, 항일문학과 결합하게 되었다.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던 한국에서는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지만 중국에서 활동하던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100편을 넘는 르포르타주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 작품들은 신문 보도의 성격을 지녔지만 문학성도 뛰어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일전쟁의 최전선에서 쓰였기 때문에 한국인의 항일 전투 상황을 그대로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정적 서술 방식으로 한국인의 적개심을 매우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이는 한국 문학사에 르포르타주라는 문학 장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르포르타주 작품들은 한국인의 항일 문학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 대표적인 한국인의 르포르타주 작품

No	저자	제목	출처	시간
1	李門山	活躍在火線上的朝鮮義勇隊	《朝鮮義勇隊通訊》 第15期	1939
2	劉金鏞편역	活躍在一, 五兩戰區的朝鮮義勇隊	《朝鮮義勇隊通訊》 第13期	1939
3	石正	和平村通訊	《朝鮮義勇隊通訊》 第7~10期	1939
4	世光	遊擊幹訓班受訓記	《朝鮮義勇隊通訊》 第14期	1939
5	楊民山	女同志們在受訓	《朝鮮義勇隊通訊》 第11期	1939
6	志成	俘虜牧本君訪問經過	《朝鮮義勇隊通訊》 第7期	1939
7	世光	在江西戰場首送敵人的新年禮物	《朝鮮義勇隊通訊》 第32期	1940
8	鄭文珠	從朝鮮到晉察冀	《抗大文藝作品選輯》 第1期	1941
9	劉金鏞역	朝鮮義勇隊第一區隊血戰紀實	《朝鮮義勇隊通訊》 第14~22期	1939
10	樸孝三	第一區隊在前方	《朝鮮義勇隊通訊》 第6~8期	1939

11	李北滿	日帝國主義統治下的朝鮮教育	《日本評論》第3卷第3期	1933
12	李青天	朝鮮革命軍在東北的抗日陣線	《華美》第1卷第34期	1938
13	林哲愛	朝鮮婦女與婦女運動	《朝鮮民族戰線》第5~7期	1938
14	民山	朝鮮革命軍事運動之回顧與展望	《朝鮮民族戰線》第2期	1938
15	一來	中國抗戰與朝鮮民族問題	《朝鮮民族戰線》第5~6期	1938
16	一來	中日戰爭中的所謂“朝鮮軍”	《朝鮮民族戰線》創刊號	1938
17	苟季昭	朝鮮義勇隊與對敵宣傳	《朝鮮義勇隊通訊》第10期	1939
18	李貞浩	現階段朝鮮社會和朝鮮革命運動	《朝鮮義勇隊通訊》第18~23期	1939
19	民山	接敵行軍記	《朝鮮義勇隊通訊》第32期	1940
20	李門山	朝鮮的真相	《東方戰友》第16~18期	1940
21	楊民山	對敵宣傳在錦河	《朝鮮義勇隊通訊》第35期	1940
22	韓志成	戰爭中的朝鮮	《國訊》第274期	1941
23	金陵	朝鮮革命的情勢	《朝鮮義勇隊》第40期	1941
24	貞浩	光榮的勝利和壯烈的犧牲	《朝鮮義勇隊》第41期	1942
25	金若山	太平洋戰爭中的朝鮮	《聯合週報》第4期	1944

### 3) 희곡

한국인의 항일 선전에 있어 희곡은 매우 좋은 문학 장르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일제시기에 임시정부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은 중국에서 총 16회 공연을 하였다.<sup>38)</sup> 이 공연들의 대본은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지 않고, 단지 『독립신문』 등의 신문에서 공연을 하였다는 보도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중에 『隔夜』(1922), 『歷史正劇』(1924), 『凱旋』(1924), 『百年的功』(1925), 『삼일훈』(1938) 등은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공연한 것이다. 또한 안창호의 총괄 지휘하에 『國交斷絶』(1924)과 『犧牲者』(1925)라는 공연이 거행되었다. 그 외에 한국청년공작대와 조선의용대 대원들도 다수의 항일극을 공연하였다. 한국청년공작대는 『한국용사』, 『아리랑』 그리고 『국경의 밤』을 공연하였다.<sup>39)</sup>

38) 윤금선, 「한인 단체의 연극 활동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34집, 141~142쪽 참조.

39) 이 부분에 대하여 윤금선, 「한인 단체의 연극 활동 연구」(『한국극예술연구』 제34집)에서 이미 자세

한국청년공작대 대원들이 공연한 『아리랑』은 중국 잡지 『중화』에서 큰 지면을 내어 보도할 정도로 중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아리랑』은 한유한(韓悠韓)<sup>40</sup>이 창작하고 한유한과 심승연(沈承衍)이 목동과 시골처녀 역할을 담당한 가곡이다. “1.서곡 제1장 2.봄이 왔네(한국 민간 가곡, 시골처녀 독창) 3.목가 (목동 독창) 4. 한국 강산 삼천리 계양식 노래 합창 제2장 5.아리랑 (한국민가) 도망자 합창 제3장 6.한국 행진곡 혁명군 합창 7.고향 생각 (한국 민가) 30년 이후 목동과 시골처녀 합창 제4장 8.한국 행진곡”<sup>41</sup>으로 구성되어 있다.

40년 전에 자유로운 한국의 금수강산에서 목동과 시골 처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이 부부가 되었지만 한국의 강산은 피바가가 되고 아리랑의 꼭대기에 일장기가 꽂혀 있었다. 강도의 순민이 되기 거부한 그들이 부모를 모시고 중국 동북지역으로 도망쳤다. (...) 노인이 된 목동과 시골 처녀는 적의 포화 속에서 장렬히 희생하였지만 한국 혁명군은 압록강을 건너 고향으로 돌아가 맹렬하게 전투를 벌였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피비린내가 나던 도살장을 다시 자유로운 국토로 만들었다.<sup>42</sup>

한국청년공작대는 30여명의 한국청년으로 구성된 독립군 단체로 1940년에 광복군에 편입되어 주로 서안(西安)에서 활동하였다. 그들이 공연한 『아리랑』은 시골 처녀와 목동 부부가 살던 아리랑산이 점령당한 후에 혁명군에 가입하고 돌아와서 일제에 투쟁하였다는 이야기다. 『아리랑』의 대본이 보존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청년공작대에서 발간한 『한국 청년』에서 이를 자세히

---

히 소개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적으로 서술하지 않겠다.

40) 한유한은 본명 한형석이고 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다가 한국광복군에서 활동하였으며 해방 후 귀국하여 서울중앙방송국 촉탁 방송위원, 부산대 교수 등을 지냈다. 그는 『아리랑』을 창작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광복군 제2지대가』, 『조국행진가』 등 몇 십 수의 노래를 작곡하였으며 그 중 1937년에 중국 산둥성에서 작곡한 『리나』는 산둥성 근대 가곡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까지 받은 인물이다.

41) 『韓國青年創戰地活動隊』, 『韓國青年』 第1期, 1940.7.15

42) 『韓國青年戰地工作隊勞軍演出』, 『中華』 第93期, 1940, 32~33쪽.



『中華』 잡지에 실린 「아리랑」의 공연 사진

소개하였고, 중국잡지 『중화』에서도 이 공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바가 있었다. 이 보도들에 의하면 한유한이 창작한 「아리랑」은 망국민의 슬픔부터 나라를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까지 무대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한유한의 「아리랑」은 늘 한국 최초의 민족 가극으로 평가 받았지만<sup>43)</sup> 문정진이 창작한 「아리랑」은 시간상으로 앞선 작품이다. 1939년 3월 1일 조선 의용대원들은 중국 계림에서 「아리랑」과 「조선의 딸」을 공연하였던 것이다. 「아리랑」은 문정진<sup>44)</sup>이 창작한 가극으로 이후 1942년에 중국잡지 『民族文化』에 발표되고 1943년에 『詩與散文』에 재수록되어 원문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유한의 「아리랑」은 시골처녀와 목동의 항일투쟁에 관한 것인데 문정진의 「아리랑」은 농민과 농민의 딸 연순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려다가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다. 등장인물과 공연내용으로 볼 때 한국청년 공작대의 「아리랑」과 조선의용대의 「아리랑」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농부: 연순아, 이 고개를 넘어가면 매서운 바람이 부는 광야가 보일 것이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자. 수많은 동포들이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갔어.

(…)

청년: (농부를 향해) 돌아가세요. (…) 조국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없다면 누가 살 자격이 있겠습니까. 조선인을 조선에서 못살게 한 게 무엇입니까?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서 우리의 땅을 지키세요. 죽어도 조국에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조국을 누구에게도 못 줍니다.<sup>45)</sup>

43) 梁茂春, 「한유한의 가극 「아리랑」」, 『中央音樂學院學報』, 2006.2, 32쪽.

44) 문정진은 「아리랑」 외에 「中韓民族與中韓青年」(1943), 「韓國學生在中大」(1943), 「悼四將士」(1942) 등 글도 발표하였다.

45) 文靖珍, 「아리랑」, 『民族文化』 第2권第8~9期, 1942, 58쪽.

농민은 딸을 데리고 고향을 등진 채 아리랑을 넘어 만주로 망명하려고 한다. 그런데 아리랑을 넘어갈 때 청년 한 명이 총을 든 채 돌아가서 조국을 지키라고 명령한다. 이에 망명에서 돌아온 조선인들이 농부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는 문정진의 『아리랑』의 줄거리다. “조선 민족의 고통을 담은 듯한 아리랑의 선율은 망국민의 한을 노래한 것처럼 들렸다”<sup>46)</sup> 문정진의 『아리랑』은 망국인의 고통스러운 삶을 잘 보여주는 동시에, 조국을 누구에게도 못 준다는 말을 통해서 조선에 돌아가 일본침략자와 싸우겠다는 의지를 선명하게 표출한다. 망명한 조선인들이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는 설정도 일본의 통치에 반항하여 잃어버린 땅을 되찾겠다는 결심을 잘 전달하였다.

『아리랑』과 함께 공연된 『조선의 딸』은 아직 각본을 확인할 수 없지만 희곡으로 쓰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당대 중국최고의 문인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나는 『조선의 딸』의 각본을 읽었다.”<sup>47)</sup> “나는 처량한 마음으로 『조선의 딸』이라는 희곡을 읽었다.”<sup>48)</sup> 1939년에 한국인 김규광과 중국 작가 양삭(楊朔)이 모두 『조선의 딸』의 각본 읽었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1939년 4월 『동방전우』에 발표한 글에서 중국 작가 전심(田心)은 『조선의 딸』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전심의 소개에 따르면 『조선의 딸』은 한국인 김창만의 작품으로 총 2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일전쟁 기간에 조선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에는 할아버지와 손녀 애련, 손자 광호 그리고 친일파 삼촌 등이 등장한다. 일본의 경제적 수탈로 할아버지와 애련의 집이 일본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바람에 애련은 어쩔 수없이 카페의 여급이 되고, 광호는 중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다. 반년 후 돌아온 광호는 애련의 도움을 받아 일본경찰서장을 총살한다. 할아버지도 친일파인 삼촌을 죽이는데 성공하지만 애련은 부상을 입어 죽게 된다.

“이는 결코 허구적인 작품이 아니라 현재 조선민족의 반일정서 및 혁명정신을 보여준 것이다.”<sup>49)</sup> 독립운동가 김규광은 이 연극을 보고 『조선의 딸』은

46) 林林, 『對於朝鮮義勇隊公演的感言』, 『구망일보』, 1939.3.3.

47) 김규광, 『공연 ‘조선의 딸’의 혁명적 의의』, 『조선의용대통신』 第6期, 1939, 4쪽.

48) 楊朔, 『讀了朝鮮的女兒以後』, 『廣西日報』, 1939.3.1.

49) 김규광, 『公演 ‘朝鮮的女兒’的革命意義』, 『朝鮮義勇隊通訊』 第6期, 1939, 4쪽.

일제의 착취를 참지 못해 반항을 택한 한국인의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냈다고 지적하였다. “현실생활 속에 나타나는 압박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반항이라는 작용과 반작용의 절묘한 조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난 혁명정신은 보는 이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sup>50)</sup> 중국 저명한 시인 애청(艾靑)도 이 희곡에서 드러난 한국인의 항일정신을 높이 평가하였다.



『今日中國』에 실린 『조선의 딸』의 공연 사진

항일전쟁시기에 희곡은 독특한 역할을 하였던 문학 장르다. 공연이라는 형식으로 전사들에게 문화적 향수를 주는 동시에 항일정신을 북돋기도 하였다. 그러나 각본은 발표되지 않아 보존되지 않은 희곡작품이 더 많다. 『조선의 딸』을 소개한 전함에 의하면 1938년 10월에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독막극 『도문강변』을 공연하였다.<sup>51)</sup> 그 외에 일제시기에 재중 한국인들이 『태행산(太行山)』, 『태양기발하의 사람들(太陽旗下的人們)』, 『혈해의 노래(血海之唱)』, 『전투의 밀림(戰鬪的密林)』 등의 항일극도 공연하였다.<sup>52)</sup>

50) 艾靑, 『對於朝鮮義勇隊公演的感言』, 『救亡日報』, 1939.3.3.

51) 田心, 『朝鮮的女兒和阿里郎』, 『東方戰友』第6期, 16쪽.

52) 曲六乙編著, 中國少數民族戲劇通史, 中國民族攝影藝術出版社, 2014, 956~957쪽 참조.



#### 4) 문학비평

일제시기에 한국인이 쓴 문학비평도 중국에서 발표되었다. 문학비평은 몇 편밖에 없지만 이 글들은 한국문단의 상황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글들은 문학비평을 통해 한국의 문학 내지 한국 사회에 대한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판하고 대일본 투쟁을 호소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이다. 한국 국내에서 발표된 문학비평이 할 수 없는 역할을 해외에서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33년 중국의 『현대』지에 발표된 「조선신문예운동소사」가 그 대표적인 글이다. 조선 정학철로 서명되어 있고 중국인 유요(俞遙)에 의해 번역된 글이다. 이 글이 일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에서 발표하려는 목적으로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신문예운동소사」는 글 쓰는 목적, “사적 회고” 그리고 “현 단계의 형세” 3부분으로 구성된다. “장혁주의 「신인」이 『개조』지에 발표한 것은 새로운 발견을 선포하였다. 이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이 조선의 문학이 아닐 지도 모른다.”<sup>53)</sup> 정학철에 의하면 일본의 식민통치하에 한국의 문학 그리고 한국문학에 대한 연구가 날로 침체해 가고 있다. 따라서 그는 한국문학의 참모습을 연구하려는 자를 돕기 위해 이 글을 썼다. “이 짧은 글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주목과 격려를 야기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sup>54)</sup> 중국문단에 소개함으로써 조선의 문학에 대한 국제적 주목을 끌어 조선문학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정학철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적 회고” 부분에 정학철은 한국의 문학을 준비 시기, 계몽운동 시기, 자연주의 시대,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여명기, 프로문학의 성장기로 나누고 이광수, 최남선, 김동인, 현진건, 최서해, 김기진 등 대표인물의 작품을 소개한다.

교육의 수준이 날로 높아졌지만(예를 들어 XX의 식민교육) 출판물의 발행은

53) 정학철, 俞遙 역, 『朝鮮新文藝運動小史』, 『現代』 第3卷第5期, 1933, 688쪽.

54) 정학철, 俞遙 역, 『朝鮮新文藝運動小史』, 『現代』 第3卷第5期, 1933, 688쪽.

날로 감소되고 있다. (...) XX 제국주의의 검열제도가 더욱 열악한 국면을 조성하였다. (...) 최근에 나오는 잡지와 출판물들은 발행금지를 당하였다.<sup>55)</sup>

“현 단계의 형세” 부분에서 정학철은 일본의 식민통치하에 조선문학이 큰 발전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거대한 XXXX의 압박 하에 토착 자본주의계급이 반동화되어 경제의 근거가 흔들리다.” 그는 일제의 경제적 수탈로 한국의 경제가 파산의 국면에 처하게 되어 조선의 문화사업이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이어서 검열제도 하에 문학작품을 게재하는 매체가 감소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카프를 이탈한 『조선지광』만이 신문지법에 따라 발행하고 있다. 그 외에 다른 매체가 없다.”<sup>56)</sup> 일제의 식민통치가 심화되는 이 시기에 정학철은 중국어로 발표한 이 글을 통해서 일본의 식민교육과 검열제도를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문학비평문이지만 조선의 문학이 크게 발전하지 못한 심층적인 원인인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조선신문예운동소사」는 중요한 문학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936년 김두용의 문학비평 「같은 전선에 서서」가 중국잡지 『문학계』에 게재되었다. “이 논문은 동경에서 보내 온 것으로 일본어로 쓰였고 임균 선생이 이를 번역하였다.”<sup>57)</sup> 편집인의 말에 의하면 김두용이 일본어로 글을 써서 중국으로 보낸 것이다. “옛날부터 조선은 정치나 문학에 있어 중국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sup>58)</sup>는 첫 문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글은 중국에서 발표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으로 쓰인 것이다. 한중의 역사적 관계를 살핀 후 김두용은 카프 결성부터 해산까지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서술하고 이기영, 한설야 그리고 임화와 김남천 등의 창작 및 전향문제를 소개하였다.

하지만 이 글의 진정한 목적이 조선의 프로문학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글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약소민족 문학의 국제적 제휴를 호소하는 데에 있다.

55) 정학철, 俞遙역, 『朝鮮新文藝運動小史』, 『現代』 第3卷第5期, 1933, 692쪽.

56) 정학철, 俞遙역, 『朝鮮新文藝運動小史』, 『現代』 第3卷第5期, 1933, 692쪽.

57) 김두용, 任鈞역, 「戰在一條戰線上」, 『문학계』, 1936, 173쪽.

58) 김두용, 任鈞역, 「戰在一條戰線上」, 『문학계』, 1936, 170쪽.

“지금 우리 조선인이 나라를 잃고 동서남북으로 망명 갔다.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이 100만 명을 넘고 이민정책 하에 많은 농민들이 거기서 오래 살려고 한다. 이주민에 대한 약탈자의 정책은 선량한 농민을 박해하고 조선과 중국 농민의 국제적 제휴를 저해하였다.”<sup>59)</sup> 김두용은 일본의 조선이민정책의 약탈적인 본질을 폭로하고 나서 중국 문학계에 약소민족문학의 제휴를 요구하였다. “중국의 우수한 작가들이 양국 농민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묘사하고 국제적 제휴를 제창하는 문학작품을 창작해야 한다.”<sup>60)</sup> 그에 의하면 중국은 역사상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고,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는 현재에도 대국답게 행동해야 한다. “약소민족을 제휴하는 문학만이 우리가 바라는 대문학이다.” 대국답게 행동하라는 것은 약소민족을 제휴하고 같은 전선에 서서 함께 싸우자는 것이다. 따라서 김두용의 이 글이 실은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는 목적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학계』의 편집인이 일부러 이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발표하였다는 사실은 중국 지식인들이 김두용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말해준다.

왜적(倭敵)의 횡포로 조선, 대만 및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시인, 문인, 예술가들이 생지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총과 칼의 위협 속에서 시대를 반영하는 작품은 그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문예원지”에 나오는 것은 달, 연애 그리고 사랑 등을 다루는 저열한 것들뿐이다. 중국의 악무무, 문천상, 황도주 등처럼 ‘불명한’ 시 한 마디 혹은 글 한 줄을 썼으면 사형이나 도형을 받을 것이다.<sup>61)</sup>

1941년에 이두산은 중국어로 쓴 「거센 흐름속의 문예가」라는 글을 발표하여 한국과 중국의 문단 상황을 고찰하였다. 우선, 그는 일제치하에 한국문학가들이 겪고 있던 고난을 보여주었다. “독자보다 더 빨리 작품의 뜻을 읽어

59) 김두용, 任鈞譯, 『戰在一條戰線上』, 『문학계』, 1936, 173쪽.

60) 김두용, 任鈞譯, 『戰在一條戰線上』, 『문학계』, 1936, 173쪽.

61) 이두산, 『洪流中的文藝家』, 『동방전우』 제31기, 1941, 11쪽.

내서 악마의 손으로 (저자를-인용자) 지하 십층에 감금할 것이다.”<sup>62)</sup> 일본의 검열제도 하에 한국 내에서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을 쓸 수 없으며 사회현실과 무관한 작품만 발표할 수 있다는 한국문단의 현실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한국과 확연히 다른 중국문단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중국의 문예작품은 자연히 항일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작가가 자신이 바로 이 거센 흐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sup>63)</sup> 그는 마르크스의 발자크 리얼리즘 담론을 인용하면서 중국에서 항일문학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발자크 리얼리즘에 근거하여 조선의 예술가도 일본의 통치에 반항하는 작품을 쓸 수 있다고 말한다. “식민지의 예술가들이 그의 진실을 표현할 수 있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망강홍(滿江紅)이나 정기가(正氣歌)와 같은 작품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묘한 수법으로 대중의 심금을 울려 혁명의 성화를 점화해라.”<sup>64)</sup> 묘한 수법을 동원하여 조선의 피식민적 현실을 리얼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이두산의 주장이다.

「같은 전선에 서서」나 「거센 흐름속의 문예가」 등 문학비평의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시기에 중국에서 발표된 문학비평은 항일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다. 이 비평문들은 일본의 식민통치가 조선문학의 발전을 저해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일적인 문학작품의 창작을 요구하였다. 이는 한국 국내에서 발표된 비평문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 비평문들은 몇 편 밖에 안 되지만 항일이라는 한국 문학비평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 4. 중국어 글쓰기의 위치: 결론을 대신하여

독립운동을 선언한 후 각처에 신문 몇 가지가 보이는데 모두 우리가 열람할 수

62) 이두산, 『洪流中的文藝家』, 『동방전우』 제31기, 1941, 11쪽.

63) 이두산, 『洪流中的文藝家』, 『동방전우』 제31기, 1941, 12쪽.

64) 이두산, 『洪流中的文藝家』, 『동방전우』 제31기, 1941, 12쪽.

있도록 국문으로 발간하였다. 중국은 우리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오늘날의 운동은 그들의 머리를 크게 자극하였다. (중국) 학계 청년들은 우리의 상황을 자세하게 알려는 자가 많다. 이에 한문 신문이 아니면 안 된다.<sup>65)</sup>

평화를 원하는 나라와 약소민족들은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반침략전쟁을 준비하거나 싸우고 있다. 조선민족의 해방운동은 세계 약소민족 해방운동에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적의 압박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상황이 해외로 전해지지 못하였다. 다른 나라에서는 조선에 관한 서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sup>66)</sup>

1920년 3월 1일에 상하이에서 『신한청년』이 중국어로 발간되었을 때 백암 박은식은 창간사에서 중국어로 발간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3·1운동 이후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중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지속하였다. 또한 중국도 서양 열강의 침략으로 반식민지로 전락했기 때문에 중국 지식인들은 적극적으로 한국 애국지사들을 도왔다. 중국 지식계와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 중국어 글쓰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3·1운동 이후 재중 한국인들이 『震壇』(1920), 『天鼓』(1921), 『光明』(1921) 등 신문·잡지를 중국어로 창간하기 시작하였다. 이 매체들을 통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인들은 수많은 중국어 문학작품을 발표하였다.

그 외에도 한국인들은 130여 권의 중국어 서적을 출판하였다. 이 서적들은 시문집, 역사저술, 인물전기 등 많은 영역에 걸쳐있으며 모두 조선의 독립을 염원하여 쓰인 것이다.<sup>67)</sup> 독립운동가 이정호가 그의 저술한 『현단계 조선사회와 조선혁명운동』에서 밝히듯이 조선에 대한 일본의 침략이 해외로 잘 전달되지 못하였고 이에 한국인의 항일운동 상황을 전세계로 알리기 위해 중

65) 백암, 『창간사』, 『신한청년』, 1920.3

66) 이정호, 『現階段朝鮮社會和朝鮮革命運動』, 讀者書店, 1939, 1쪽.

67) 이동매·우림길, 『일제시기 중국에서 출판된 조선인 저서에 대한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제62집, 2019 참조.

국어 글쓰기를 택하였다.

일제시기에 한국인의 중국어 글쓰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국의 현실을 중국어로 밝히자 중국 지식인들이 큰 관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지지와 원조를 지원하였다. “이 『신한청년』은 그들이 평화롭게 독립운동을 선전하는 도구다. (….) 한국과 우리는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일본은 한국을 모욕하고 한국인을 살해하고 있다. (….) 사랑하는 형제들이 다시 분기할 수 있도록 가여운 이웃을 도와주자.”<sup>68)</sup> 『신한청년』이 나오자 중국잡지 『인학』의 편집자가 적극적으로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보내서 한국인을 원조하자고 호소하기까지 하였다. 『신한청년』에 실린 중국어 글들은 침략을 받아 고통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과 침략을 저항하는 한국인의 항일정신을 중국인에게 잘 전달하여 중국 지식인으로부터 호응을 받았던 것이다.

이 점에서 일제시기에 한국인의 중국어 글쓰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제시기에 한국인은 조선어,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로 글을 썼다. 일제의 강요로 일본어로 글을 써야만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제의 식민통치에 반항하여 중국으로 망명한 한국인들이 중국어로 글을 쓴 것도 역사적 사실이다. 한국인의 일본어 글쓰기에 대하여 일찍이 “일어로 쓴 이들 창작은 과연 어디에 귀속될 수 있을 것인가”<sup>69)</sup>라는 질문이 던져졌다. 또한 “한국현대문학사의 시각에서 보면 시국적인 상황을 계기로 ‘국어 상용’을 더욱 극심하게 강요받았던 1940년대 전후 몇 년간에 걸쳐서 나타난 일본어 소설들을 한국현대문학에 본질적인 영역으로 간주할 수 없는 일”<sup>70)</sup>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광수 이래 형성된 속문주의에 따르면 일본어로 창작된 친일문학이나 저항문학, 혹은 중국어로 창작된 작품은 모두 한국문학으로 분류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인의 중국어 글쓰기는 일본어 글쓰기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

68) 王吟雪, 『新出版物の介紹和批評』, 『人學』 제1권1호, 1920, 9쪽.

69)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출판부, 2003, 151쪽.

70) 방민호, 『일제말기 문학인들의 대일 협력 유형과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2집, 2007, 263쪽.

다. 중국어 글쓰기는 강한 민족의식과 항일정신을 매우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30여 년 동안 한국인은 중국어로 130여 권의 저술을 출판하였으며, 수많은 잡지를 출간하고 몇 백 편의 항일 작품을 발표하였다. 비록 중국어로 쓰였지만 이 작품들은 저자가 한국인이고 내용은 한국에 관한 것이다. 또한 한국의 독립과 해방이라는 명확한 목적으로 쓰인 것이다.

일제시기에 한국 내에서 항일 담론을 형성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이국공간은 한국인의 항일 문학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한설야 등의 일본어 글쓰기가 저항의지를 우회적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것에 비해 신규식, 이두산 등 애국지사들은 중국어로 쓰인 뚜렷한 항일 문학을 남겨둘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어 글쓰기를 놓고 친일문학이나 저항문학이나 따져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어 글쓰기는 항일 문학이 온전히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이 중국어로 쓴 항일 문학을 어디에 귀속시킬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았다. 이는 한국의 학계에 남기고자 한다.

■ 참고문헌

- 『天鼓』; 『동방전우』; 『광명』; 『조선의용대통신』.  
某韓人, 『去國吟』, 『東方雜誌』 第8卷第2號, 1911.  
奉 文, 『蓄積의 血債』, 『조선의용대통신』 제33기, 1940.  
文靖珍, 『아리랑』, 『民族文化』 第2卷第8~9期, 1942.  
白 淵, 『最近韓國國字運動』, 『革命公論』 제1권제4호, 1934.  
정학철, 俞遙역, 『朝鮮新文藝運動小史』, 『現代』 제3권제5기, 1933.  
李斗山, 『洪流中的文藝家』, 『동방전우』 제31기, 1941.  
茅 盾, 『關與報告文學』, 『中流』 제1권제11기, 1937.  
艾 靑, 『對於朝鮮義勇隊公演的感言』, 『救亡日報』, 1939.3.3.  
楊 朔, 『讀了朝鮮的女兒以後』, 『廣西日報』, 1939.3.1.  
김재용,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4.  
김주현, 『근대 계몽기 재중 발간 매체에 실린 한국문학자료의 조사 및 연구』, 『어문론총』 제75호, 2018.  
김동식, 『한국의 근대적 문학개념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9.  
오장근, 『사건보도, 사태보도, 르포르타주』, 『텍스트 언어학』 제10집, 2001.  
박정선, 『해방기 문화운동과 르포르타주 문학』, 『어문학』 제106집, 2009.  
윤금선, 『한인 단체의 연극 활동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34집.  
방민호, 『일제말기 문학인들의 대일 협력 유형과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2집, 2007.



## 日制時期韓國人的中文書寫與抗日文學

李冬梅\* · 牛林杰\*\*

日制時期, 很多朝鮮愛國志士亡命中國, 並在中國進行獨立運動. 同時, 他們還用中文創辦了200餘種報紙雜誌, 建構成抗日公共領域. 以此為基礎, 他們發表了詩歌, 散文, 戲劇, 批評等多種文學作品. 此外, 還創作了當今韓國文學界所缺乏的報告文學作品. 這些文學作品不僅批判了日本殘酷的殖民統治, 描繪出朝鮮志士的戰鬥英姿, 而且具有很高的文學造詣, 得到了中國文學界的高度評價. 這些文學作品的創作, 說明韓國文學史上也存在著抗日文學這一文學類型, 彌補了韓國文學史的缺憾. 這些抗日文學作品是愛國先烈們在槍林彈雨中創作而成, 具有極高的歷史意義, 有待於深度挖掘與研究. 這些作品由韓國人創作, 但創作語言卻是中文. 韓國國內無法進行抗日文學書寫時, 韓國人的中文抗日文學卻在中國落地生花, 獨具特色的韓國人中文書寫值得深入探討與研究.

**關鍵詞**: 抗日文學, 抗日敘事, 中文書寫, 報告文學, 朝鮮義勇隊

논문투고일: 2020년 7월 17일 || 심사완료일: 2020년 8월 14일 || 게재확정일: 2020년 8월 18일

\* 李冬梅, 青島濱海學院 中外言語文化研究中心 講師

\*\* 牛林杰, 山東大學 外國語學院 教授

